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한복 (명절 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 애매한 종료 판정에 무너진 '우생순' 신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핸드볼

## 여자부, 노르웨이에 28-29 분패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마지막 1초를 건디지 못하고 노르웨이에 패해 '금빛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꿈을 날렸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준결승에서 노르웨이에 28-29, 1점 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로써 한국은 4년 전 아테네 눈물의 은메달을 금빛으로 바꾸지 못하고 동메달을 가리는 3-4위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러시아-헝가리의 또 다른 준결승 패자와 23일 오후 2시30분 동메달을 다툰다. 초반부터 불안했다. 한국은 허순영(오르후스)이 골문 앞 터닝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뒤 한 골씩을 주고받는 접전을 계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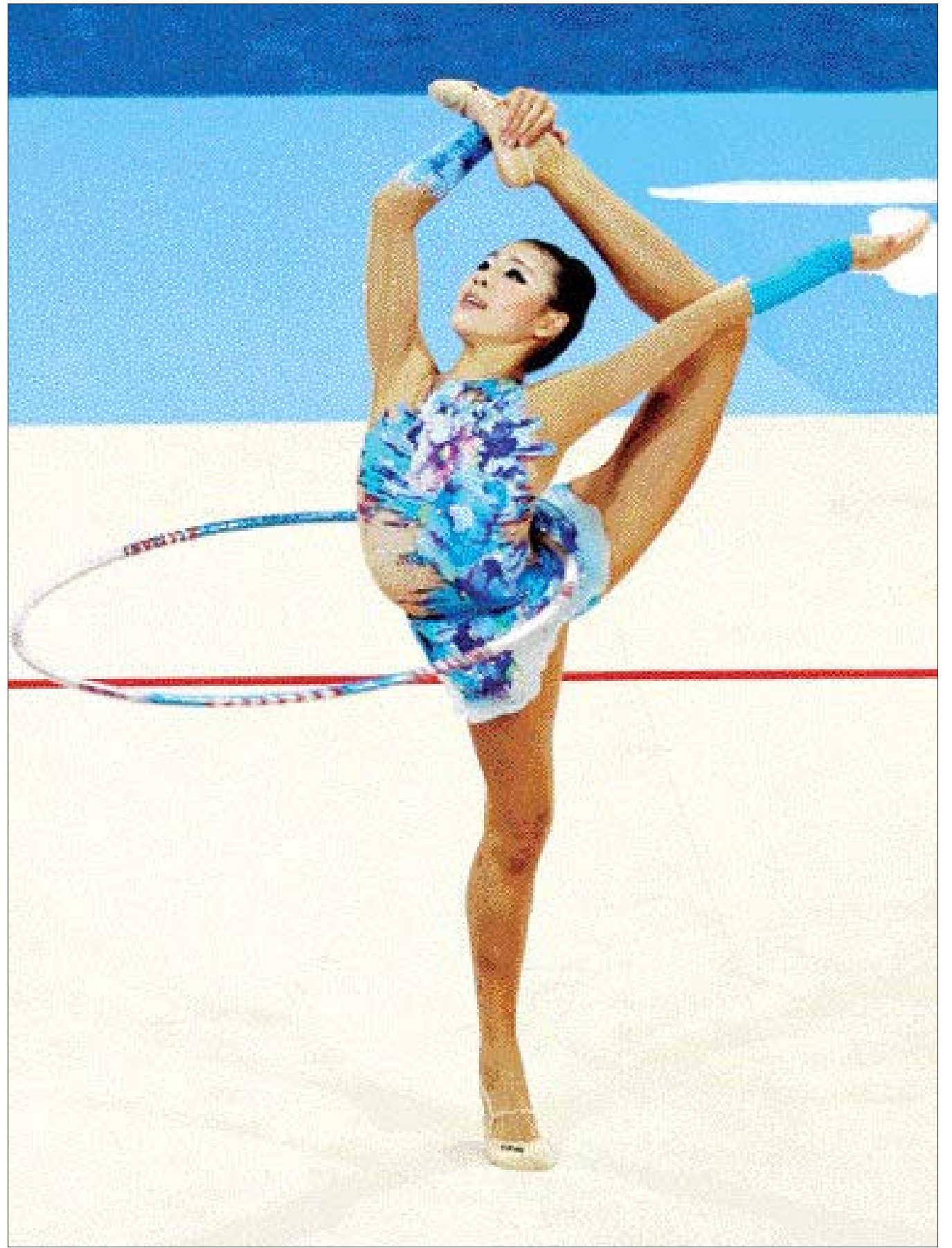
전반 7m 던지기를 허용하며 3-5, 2점 차로 뒤졌다. 뒤지던 경기를 뒤집은 것은 17분부터였다. 7-8로 뒤지던 한국은 상대 센터백 그로하메르센이 2분 퇴장 당한 사이 안정화(대구시청)의 왼쪽 측면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박정희(부산건설)가 리바운드를 따낸 뒤 골망을 갈라 다시 균형을 맞췄다. 이어 문필희(부산건설)의 외곽포를 시작으로 오성욱, 안정화까지 득점에 가세, 4골을 몰아넣으며 12-8, 4점 차까지 달아났다. 승기를 잡은 듯했지만 노르웨이는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전반 막판 문필희가 2분 퇴장 당한 사이 한국은 노르웨이에 계속 속공을 허용했고 결국 전반을 간발의 리드를 잡은 15-14로 마쳤다. 후반 12분부터는 오히려 점수를 더 내줬

다. 한국은 허순영이 2분 퇴장 당한 사이 계속 점수를 허용하며 후반 15분에는 19-23, 4점 차까지 밀려났다. 오영란 대신 후보 골키퍼 이민희(용인시청)가 들어와 2차례 선방을 해준 틈을 타 홍정호와 박정희가 연달아 슈팅을 골문에 꽂으며 22-24, 2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거기까지였다. 결정적인 슈팅은 상대 골키퍼에 막히고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다. 경기 종료는 5분 남기고 한국은 23-27, 4점 차로 뒤졌다. 태극 여전사들은 경기 종료 25초를 남기고 안정화의 돌파와 허순영의 터닝 슈팅이 이어져 27-28, 1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문필희가 6초 전 동점골을 터트리며 승부를 연장까지 몰고가는 듯했지만 종료 직전 노르웨이 센터백 하메르센에게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코칭스태프는 종료 버저가 울린 뒤 골이 들어갔다면 항의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코어는 공식기록으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21일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핸드볼 4강전 한국 대 노르웨이 경기에서 오성욱이 강수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신수지 황홀한 후프연기

2008베이징올림픽이 계속된 21일 베이징 공과대학에서 열린 리듬체조 예선에서 신수지가 후프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테네 금' 유승민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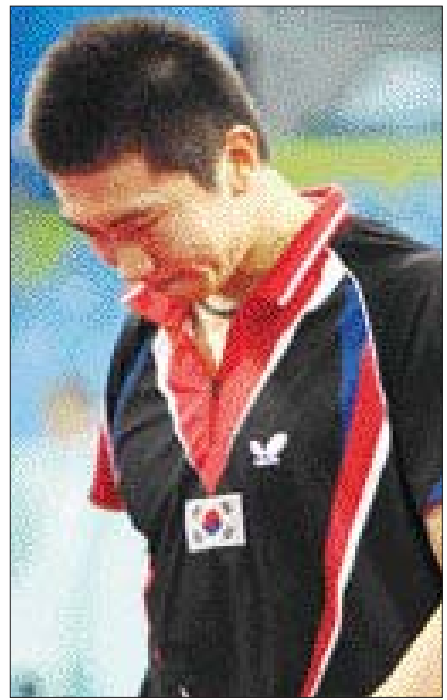
윤재영도 16강 진출 실패

여자단식 3명 모두 탈락



탁구

남자탁구 개인전에 나선 유승민(삼성생명·사진)과 윤재영(상무)은 32강에서 탈락했다. 또 '수비수 듀오' 김경아(대한항공), 박미영(삼성생명)도 여자단식 16강을 넘지 못했다. 21일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남자단식 3회전(32강)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유승민은 홍풍의 복병 고라이작에게 2-4(7-11 8-11 6-11 11-4 11-5 10-12)로 탈락을 잡았다. 윤재영도 2003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베르너 실라거(오스트리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3-4로 무릎을 꿇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경아도 앞서 열린 여자단식 16강에서 미국의 중국계 선수 왕연에게 폴세트 접전



끝에 3-4(9-11 11-9 8-11 12-10 11-6 9-11 5-11)로 겨 8강행 티켓을 놓쳤다. 또 박미영도 왕년의 '탁구여왕' 왕난(중국)의 벽에 2-4로 막히면서 16강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 男 핸드볼도 메달 꿈 무산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스페인에 달미를 잡혀 20년 만의 메달 꿈을 접었다.

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0일 밤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허 체육관에서 펼쳐진 남자핸드볼 8강전에서 스페인에 24-29, 5점 차로 패했다.

한국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전 전패로 열세였던 스페인을 이번에도 넘어지지 못하며 5-8위 결정전으로 떨어져 폴란드와 22일 국가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를 치른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슛 톨릴 틈이 광광한 접전이 계속됐다. 한국이 1골을 넣으면 스페인이 1골을 따라왔고, 스페인에 1골을 뒤지면 한국도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따라갔다.

전반에만 무려 동점이 13차례나 나왔다. 한국의 2분 퇴장이 1번이었던 반면 스페인 2분 퇴장이 3번이나 났는데도 점수를 벌리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웠다.

경기 종료는 7분 남긴 후반 23분 한국은 18-26, 8점 차까지 뒤져 더 이상 따라갈 힘을 내지 못했다.

## 레슬링 달랑 '동' 1개 '최악'

새 경기 방식에 전략 부족

84년부터 이어온 금맥 끊겨

'효자'서 '노골드' 종목 전략



레슬링

종합대회 때마다 효자 노릇을 토포해 왔던 레슬링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최악의 성적을 냈다.

그레코로만형 5체급, 여자 자유형 1체급, 자유형 5체급에 선수를 출전시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박은철(27·주택공사)만이 동메달을 따온 뿐 다른 선수들은 메달없이 짐을 챙겨야 했다.

한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금 2, 은 1, 동메달 4개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금맥을 이어 왔지만 베이징에서 끊어진 것이다.

더욱이 결승까지 오른 선수도 1명이 없어 성적 부진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진은 4년전 아테네대회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경기방식이 이번 대회부터는 대폭 바뀌었는데 전략, 전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아테네까지만 해도 그레코로만형의 경우 3분 2회전으로 승부를 가렸지만 베이징에서는 1회전 처음 1분간은 스탠딩 자세로 하고 나머지 1분간은 30초씩



2008베이징올림픽이 계속된 21일 중국농림대 체육관에서 열린 레슬링 자유형 120kg급 한국 김재강-키자흐스탄 마리드 무탈리모프 경기가 끝난 뒤 심판이 무탈리모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올림픽 메달 획득의 산실이었던 레슬링은 이번 올림픽에서 최악의 성적으로 마감하게 됐다.

상대를 파테르 자세에 놓고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는 3회전 2선승제로 바뀌었다.

일부 레슬링인들은 이같은 경기방식은으로는 기존에 한국 선수들이 써온 기술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기방식을 꺾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경기방식 변경 뿐 아니라 경기간 간격도 크게 줄었다. 이전에는 각 체급별로 정해진 매트에서 경기가 열려 선수가 한 경기를 끝낸 뒤 다음 경기를 할 때까지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3개의 매트를 모두 가동하면서 선수들이 휴식할 시간

은 10~15분으로 줄어들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한국레슬링은 국제무대를 주름잡았던 문의제, 김인섭 등이 은퇴한 뒤 세대교체까지 걸렸다. 큰 무대에 나온 젊은 선수들은 패기가 넘치지만 경기운영 미숙으로 점수를 내주며 승리 문턱에서 주저 않고 말았다.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는 "차이는 있지만 2-3명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며 "이번 대회에서 드러났던 미숙한 점을 보완해 4년 뒤 재도약을 노리겠다"고 말했다.